

기획처 장관-한국노총 위원장 면담 개최

- 예산안 편성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소통 강화
- 근로여건 개선, 안전망 강화 등 현장 의견 토대로 체감형 지원 확대 노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20일(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최초의 면담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최미라 상임부위원장, 김현진 상임부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은 공무직노동자 처우개선, 장기요양보호사 경력인정 고려, 돌봄노동자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제안하였고, 고용보험 모성보호 사업 분리,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돌봄사업 지원 및 산재예방 정책 강화 등 노동·복지 제도 전반에 관한 폭넓은 사항을 건의하였다.

박 장관은 노동계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정부는 금년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임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저출생·고령화, AI 산업전환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나갈 것이며,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예산안 편성 및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세밀히 살피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근로여건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통합성장정책관 포용사회전략과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4-214-1710)
		담당자	사무관 김진 (zin0427@korea.kr) 사무관 임상현 (lmsanghyun94@korea.kr)